

외국어학습에서 다독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

임 성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빨리, 정확히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많이 읽으며 많이 외우며 많이 써보며 많이 말해보는것입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98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외국어학습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외국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참고도서를 많이 읽을데 대하여 그리고 참고도서를 읽으면 이미 배운 외국어지식을 공고히 다질수 있다는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외국어로 된 자료를 많이 읽는것은 외국어를 빨리, 정확히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외국어를 빨리 소유하기 위한 최상의 방도는 바로 외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어 독해력을 비롯한 여러 언어기능들을 높이는것이다.

외국어읽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다독의 방법으로 독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독은 정독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시간안에 단어와 표현 그리고 문법규칙에 구애됨이 없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량의 자료를 읽는 읽기류형이다.

세계적으로 다독이 외국어실력제고의 중요한 방도로 인식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를 보급하기 위한 다독계획(E.R.P: Extensive Reading Program)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기관들이 망라되어 서로의 협조와 발전을 추구하고있으며 국가적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분이 다독의 방법으로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최근에 영어사용국들의 교육기관들이 영어학습자들의 편리를 도모하여 세계적인 명작들을 쉬운 말로 개작하여 출판보급하고있는것은 다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높아지고있는것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쉬운 영어로 개작된 영어도서들은 언어수준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급수에 따르는 기본어휘사용수를 보면 1급 300단어, 2급 600단어, 3급 1 200단어, 4급 1 700단어, 5급 2 300단어, 6급 3 000단어이다.

이러한 책들에 대한 독서는 문법지식을 공고히 하거나 단어소유량을 늘이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흥미감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도 리용할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어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외국어독해력이 형성된게 된다. 쉬운 외국어자료를 많이 읽어 애써 노력함이 없이 독해력을 형성하는것 바로 이것이 최근시기에 많이 강조되고 보편화되고있는 외국어다독의 본질이다.

외국어학습에서 다독은 외국어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외국어학습에서 다독의 중요성은 우선 외국어독해력을 높여준다는데 있다.

학생들은 쉬운 글로 쓰여진 흥미있는 이야기줄거리를 파악하는데 대하여 그 어떤 다른 과제의 학습보다도 더욱 진취적이고 주동적인 립장을 취한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주

인공들의 세계에 같이 심취되어 다음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력이 빨라지는 것으로 하여 이를 동반한 독자의 전반적인 독해력이 총체적으로 개선되게 된다. 때문에 실력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읽기를 부담시 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더 읽을것을 요구한다.

외국어학습에서 다독의 중요성은 또한 다른 언어기능들도 종합적으로 높여준다는 데 있다.

학생들은 다독을 통하여 더 많은 외국어어휘들을 습득하고 공고화하며 문장에 대한 깊은 인식과 활용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배운 문법지식을 공고히 다지고 글쓰기능력도 개선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말하기에서 정확성을 보장하며 외국어활용능력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게 된다.

외국어학습에서 다독의 중요성은 또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심리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과외도서학습에 다독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영어학습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목들에 대한 학습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물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론리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력이 훨씬 개선되었다.

외국어다독학습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무엇보다먼저 독서의 주체인 학생들자체가 학습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 수행을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독목표는 첫째로,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즐겨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수행하자면 학생들이 혼자서만 책을 읽을것이 아니라 교원 또는 학급동무들과 책읽기경험을 나누면서 책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원이나 이미 같은 책을 읽은 학생의 도움을 받아 흥미감을 가지고 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에 책의 수준이 자기들이 소유하고있는 외국어수준보다 높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책읽기에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

다독목표는 둘째로, 학생들이 빨리, 자연스럽게, 조용히 책을 읽는 훈련을 통하여 직독직해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자면 학생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독서를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다독을 할 때 될수록 사전을 보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우 외국어학습자들은 새 단어가 나오면 무작정 사전부터 보는데 습관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고가 중단되어 소설작품의 감정세계에서 벗어나거나 리해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서는 읽기에 대한 자신심을 잃게 된다. 많은 량의 읽기자료를 빨리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과외독서에서는 이것이 금물이다. 모를 단어들은 문맥을 통하여 그 뜻을 도출해내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읽기과정이 보다 원활하고 자동적으로 흘러가면서 외국어단어들을 의미단위별로 인식하는 능력과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독해력을 높일수 있다. 과외독서에 대한 다독에서는 같은 급수의 책들을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보면서 읽기량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 같은 급수의 책들을 련이어 보게 되면 같거나 비슷한 외국어어휘와 문장구조에 맞다들리는 회수가 늘어나게 되며 그만큼 읽기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다독목표는 셋째로, 책읽기를 통해 단순히 언어지식만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책읽기도중이나 책읽기후의 연습들을 통해 조별로 또는 학급 앞에서 이야기에 펼쳐진 사회력사적배경,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관점과 태도, 주인공의 사상세계 등 논리적사고를 동반하는 연습들을 통하여 책을 읽은 소감을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

외국어다독학습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다음으로 교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교원은 무엇보다도 다독자료들이 자본주의생활세대가 반영된 소설작품들의 간략본이 기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수업시간이나 수업후에 학생들의 다독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우선 교원은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이 자기 수준보다 힘든 책을 선정하는 경우 사전에 매달려 개별적인 새 단어들의 이해에만 급급하느라 책을 내용적으로 재미있게 읽을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는 책읽기를 즐겨하는 기풍을 확립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원은 학생들에게 다독을 통한 책읽기가 결코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니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다독학습의 시작은 같이하였어도 학생들의 수준이 각이하며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속도로 책읽기를 진행하는것만큼 책읽기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다불러대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와 류형의 책들을 선정해주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고전소설들을 쉬운 말로 고쳐 쓴 도서들을 가지고 책읽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일부 학생들인 경우 고전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찰즈 디킨즈작)보다도 현대문예작품인 《의뢰인》(존 그리삼작)이라는 책을 더 즐겨읽는 경우가 많다. 다독의 수행자는 학생들자신인것만큼 자기의 성격과 취미, 수준에 맞게 외국어도서들을 골라 읽도록 선택의 여지를 충분히 주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원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학습조별로 만나 읽은 내용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중단없이 다독을 해나가도록 고무격려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교원자신도 학생들이 읽고있는 책을 읽어 내용을 파악하며 학생들과 같이 토론도 하면서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의욕을 높여주는것이다.

한개의 책에 대한 독서를 끝낸 학생들에게 질문서 같은것을 제시하여 책에서 제일 재미있는 대목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 주인공의 성격묘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대목 같은것을 적어내도록 한 다음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것이 좋다.

또한 교원은 학생들이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나 그에 대한 소감을 요약글로 쓰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검열해주어야 한다.

요약글은 학생들이 책을 읽었다는것을 립증해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된다. 교원은 요약글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있는가를 판단할수 있다.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는 학생들을 발견하면 다른 책을 선택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은 다독에 기초한 과외도서학습에서는 시험을 자주 치지 말아야 한다.

시험준비와 결과에 따르는 긴장감을 학생들에게 조성하면 강요성을 배제하는 다독의 사명에 부합되지 못하게 되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독서습관을 파괴할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집체적통제를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에 학생들이 기억에 부담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시험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읽었는가 아니면 읽지 못하였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예: 기본내용이 무엇인가)이나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되살릴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질문(예: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적인가)을 제시하는 시험형식을 취할수 있다.

또한 교원자신이 독서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책읽기를 하는 교원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누구나 다 책에 대한 소개나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원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립하게 된다.

외국어다독학습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다음으로 학생들이 과외독서련습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외독서련습류형은 책읽기전의 련습, 책읽기도중의 련습, 책읽기후의 련습으로 구분할수 있다.

과외독서련습류형에는 우선 책읽기전의 련습들이 있다.

책읽기전의 련습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모임을 통한 련습을 진행할수 있다.

매 학생들에게 해당 도서에 나오는 임의의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내용(이름, 직업, 성격, 생김새, 생활목표 등)이 적힌 표를 한개씩 나누어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연회에 초청되었다고 가정하고 교실안에서 빙빙 돌면서 만나는 새 사람들에게 자기자신(해당 도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다음 상대방의 소개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종이에 기록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모든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해당 도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목록이 얻어지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모여앉아 해당 작품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것인가, 매 등장인물들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것인가를 토의한다. 후에 학생들은 책을 실지로 읽는 과정에 자신들이 예측한 내용과 책의 내용을 대비해보게 된다.

책읽기전의 련습에서는 이야기줄거리맞추기련습을 진행할수 있다.

해당 도서의 장제목들이 대체로 이야기줄거리를 시사해주는것을 고려하여 장제목들의 순서를 마구 형클어뜨리고 학생들이 조별토론을 통하여 그 순서를 맞추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가운데서 가장 재미있어보이는 장, 가장 슬픈 이야기를 담고있다고 보아지는 장,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장 등을 선택하게 할수 있다.

책읽기전의 련습에서는 또한 이야기의 앞부분과 뒤부분에 기초하여 가운데부분의 내용을 추측하는 련습을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에게 작품의 임의의 한개 장의 첫번째 단락과 마지막단락을 주고 그사이에 벌여질수 있다고 보아지는 사건의 내용을 추측하도록 한다.

책읽기전의 련습에서는 그림을 보고 내용을 추측하는 련습을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에게 해당 도서에 들어있는 임의의 그림을 한개 보여주면서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나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추측하도록 한다.

과외독서련습류형에는 또한 책읽기도중의 련습들이 있다.

책을 읽는 도중에는 될수록 련습을 많이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련습들을 간단히 해볼수 있다.

책읽기도중의 연습에서는 이야기줄거리와 관련한 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에게 해당 작품에 언급된 여러 사건들의 순서를 마구 뒤섞어 배열하여 제시한다. 학생들은 책을 읽는 과정에 그 순서를 맞추어나간다.

책읽기도중의 연습에서는 등장인물묘사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에게 작품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여러개의 형용사들이 인쇄된 표를 나누어준다. 학생들은 책을 읽어나가면서 제시된 형용사들가운데서 매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해당하는것을 골라 짝을 맞추어나간다. 학생들은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등장인물들에 대해 달리 평가할수도 있기때문에 처음에 선택하였던 형용사를 바꿀수도 있다.

과외독서연습형태에는 또한 책읽기후의 연습들이 있다.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을 읽기 전이나 읽는 도중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연습들을 진행할수 있다. 이 단계에서 진행하는 연습들은 학생들이 자기들의 이해정도를 스스로 검열해볼수 있는 과정으로 된다.

책읽기후의 연습에서는 등장인물과 관련한 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배역놀이, 작품에 나오는 대사가 누구의 말인가를 알아맞추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책읽기후의 연습에서는 해당 작품을 각색하는 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해당 작품의 마감에 이어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작품이 마무리된 때로부터 10년후에 만나 나누는 대화를 만들기, 이야기의 전말을 다른 방향으로 가상하여 다른 이야기를 꾸미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책읽기후의 연습에서는 해당 작품을 극대본으로 만드는 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작중인물들의 대본을 만들어 작품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장(길게 쓰는 경우)에 대한 극대본을 만들어 조별로 발표할수 있다. 이때에 책에 나오는 인용문들을 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책읽기후의 연습에서는 해당 작품과 관련한 알아맞추거나 새로운 창작품만들기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자체로 해당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작품에 나오는 대사, 작가, 배경 등과 관련한 알아맞추기문제를 만들어 조별로 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품을 광고하는 글이나 해당 작품에 언급된 건물이나 장치를 그림으로 그려 선전하는 선전물을 만들도록 할수 있다.

책읽기후의 연습에서는 해당 작품 요약하기연습을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이 작품의 기본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읽은 내용을 적은 편지를 자기 친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읽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적은 서평을 신문에 투고하도록 하는 등의 형식으로 글을 쓰게 할수 있다.

책읽기후의 연습에서는 독서과정에 대하여 돌이켜보기를 진행할수 있다.

학생들이 자주 모여앉아 자기들의 독서경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이때에는 임의의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을 어떤 장소에서 읽었는가, 재미있었는가, 왜 재미있(없)다고 생각하는가, 쉬웠는가, 힘들었다면 무엇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책을 읽을 때 제목 등을 통하여 추측을 해보았는가, 모르는 단어들에 대하여 그 의미를 추측해보았는가 아니면 사전의 도움을 받았는가 등의 항목들로 이루어진 질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

여 의견을 나눌수 있다.

우리는 다독기능을 다른 읽기기능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학생들의 외국어독해력을 비롯한 언어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어교육실천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실천형의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다독기능, 과외독서